# 격 려 사

오늘 자성과 쇄신 결사, 그리고 민족문화수호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봉선사 결의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봉선사 주지 인묵스님과 봉선사 소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불교는 위기와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마음을 한데 모으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해 정부와 여당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매우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700년 우리 민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한국불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단체로 치부해 왔습니다.

우리 또한 정부가 주는 예산으로

편하게 불사하고, 편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처럼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내부는 부정적 관행과 타성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한국 불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가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배인 부정적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오늘의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 한국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외형으로만 보면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덩치에 비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원효스님처럼 스님들이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터전 속에서 함께 호흡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하락하였고, 우리들 스스로 결집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불교를 홀대하고 쉽게 생각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족문화수호 활동은 단순히 외부를 향한 요구나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자성과 성찰을 위한 활동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6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우리 종단의 자성과 쇄신을 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시대에는 백련결사와 정혜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근세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결사로 한국 승가의 혁신과 수행풍토 확립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총무원장 취임 이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종단운영의 모토로 삼고, 지난 1년여 동안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자비행을 실천해 왔으며, 교황을 비롯한 각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간 화합을 위해 종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불교’라는 전제와 더불어 ‘자성과 쇄신 결사’는 두 수레바퀴처럼 시대상황과 흐름에 부합하고 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부대중은 일심으로 화합하여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부처님 법대로 사는 길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전하는 길입니다.

지금 비록 조금은 어렵고 더디더라고 종교적 가르침과 원력, 국민들의 비판과 격려속에 한국불교가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지난날의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한국불교가 변화와 쇄신하는 모습으로 나설 때만이 한국불교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 부끄럽지 않고 국민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진하고, 발원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2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